

서핑 참여자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관한 횡단적 분석

염상근¹ · 강현욱^{2,†}

¹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생

²단국대학교 생활체육학과, 교수

(2020년 3월 28일 접수: 2020년 4월 28일 수정: 2020년 4월 28일 채택)

Cross-sectional analysis on recreation specialization of surfing participants

Yeom Sang-geun¹ · Hyun-Wook Kang^{2,†}

Department of Dan Kook University

(Received March 28, 2020; Revised April 28, 2020; Accepted April 28, 2020)

요약 : 본 연구는 서핑 참여자를 대상으로 입문과정에서부터 레크리에이션 전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횡단적으로 분석하여 국내에서 생소한 서핑이라는 여가활동을 소개하고 국내의 서핑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참여자 각 개인이 서핑을 통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에 관한 경험을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문화기술지를 통해 참여자가 서핑을 즐기게 되면서 바뀌는 일상과 문화 행위패턴을 파악하면서 서핑을 통해 변화되는 삶의 의미를 도출하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유목적 표집법을 활용하여 11월~3월 진행되는 겨울 서핑캠프에 연구자가 참여해 10명의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심층 인터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총 531개의 개념적 단어를 식별하고 첫 번째 분류를 설정하였다. 둘째, 서핑 참가자들은 처음 서핑을 하기 전에도 서핑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셋째, 서핑 참가자들은 여가제약을 경험하고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에 도달하기 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넷째, 서핑 참가자들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섯째, 서핑 참가자들은 삶의 변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신체 훈련, 서핑 기술 향상, 자신의 비디오 분석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서핑을 더 즐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제어 : 서핑,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문화기술지, 횡단적분석, 여가제약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surfing which is not a familiar leisure activity in Korea and provide understanding of surfing participants through the cross-sectional analysis on the process of forming recreational specialization from introductory levels with enthusiastic surfing participants. This study employs a qualitative approach to analyze each participant's experience on recreation specialization in detail, and in particular uses ethnographic research methods to derive participants' meaning of life and daily routines and cultural behavioral patterns changed through surfing. First, through the analysis of in-depth interview data, total 531 conceptual words were

[†]Corresponding author
(E-mail: leon5989@hanmail.net)

identified and the first categorization was established. Second, surfing participants mentioned that they had high expectations of surfing even before they first encountered it. Third, surfing participants noted that they experienced leisure constraints and made efforts to resolve this issue before reaching the recreation specialization process. Fourth, surfing participants were found to go through a recreation specialization process. Fifth, surfing participants were found to undergo life changes. They worked hard in their everyday life through physical training, improvement of surfing skills, and analysis of their own videos to be better at surfing.

Keywords : *Surfing, Recreational Specialization, Qualitative Approach, Cross-Sectional Analysis, Leisure constraints.*

1. 서론

최근 20대~30대 젊은 계층은 남들과 차별화된 자유롭고 개성 있는 여가활동을 SNS(소셜네트워크)에 드러내는 경향이 커졌다.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개인의 개성에 맞는 라이프스타일을 표출하고 활동들을 공유하게 되었다. 매스미디어의 발달은 기존에 성행하던 신체활동과는 차별화된 여가 활동을 즐기는 계층을 증가 시키고 있다(강현욱, 박광원, 2017)[1]. 특히, 해외의 경우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스포츠로 관심사가 옮겨가는 추세이며(김기훈, 2000)[2], 카레이싱, BMX자전거, 서핑 등 각종 익스트림 스포츠가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최근 국내에서는 서핑이 대중들에게 인기 스포츠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최호수, 2016)[3].

서핑이란 보드나 나무판을 이용하여 파도의 면을 타는 스포츠 활동이다(박화윤, 2017)[4]. 즉, 서핑은 보드에 의지해 해변으로 들어오는 파도에 속도를 맞춰 패들링을 하여 스스로 일어서서 파도의 면을 타고 해안까지 질주하는 것을 말한다(김지훈, 2011)[5]. 서핑은 파도의 크기와 스피드에 의해 서퍼가 타는 보드 판의 종류에 따라 기술이 다양하다. 특히, 육지와 다르게 파도 위에서 보드가 움직이기 때문에 코어 능력과 고도의 균형감각 능력이 필요 되어진다(신승우, 박태진, 서국은, 2018)[6]. 해양스포츠가 발달되어 있는 호주, 미국, 유럽에서는 서핑은 인기 있는 해양스포츠로 오래된 역사와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동해안과 서해안 및 남해안에 펼쳐진 1만 2682km의 넓은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강원도 양양의 수십여 개의 서핑 전문점이 생겨났으며(김윤진, 2019)[7], 강원도 양양죽도, 고성

해안까지 해수욕장에 서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서핑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핑에 관련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서핑과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서핑관광객 특성과 심리요인간의 연구(최호수, 2016)[3], 서핑 참여자의 참여시 나타나는 심리요인과 지속적인 참여에 관한 연구(김수진, 2017; 안주오, 2011)[8,9], 서핑용품과 관련된 연구(김지훈, 2011; 이지훈, 2012; 황지민, 2017)들이 주를 이루었다.[5,10,11] 최근에는 서퍼들의 숙련도에 따른 균형능력과 하지 근활성도 분석(김효신, 2019)이 있다[12]. 대부분 서핑 참여자의 참여에 나타나는 심리적 요인간의 관계를 확인한 양적연구와 서핑 용품관련 연구 및 생리학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초기단계의 요인관계 검증연구에서 서핑 참여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욕구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 되어진다.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문화기술지 연구 방법은 장기간의 관찰과 참여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연구방법으로 소개되어왔다.

문화기술지 연구는 사람이나 문화집단에 대한 중요사실을 기술하는 연구이다. 문화기술지의 장점은 문화적으로 구성된 환경의 맥락에서 인간생활을 이해하고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특히,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보거나 들은 내용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다루고자한다. 연구자는 정보제공자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의 공유되는 세계관과 가치관 및 의미전달과 그들의 태도와 전체적인 삶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Glesne, 2008) [13].

이 연구에서는 기초연구 단계에 있는 서핑의 실재를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

하여 서핑에 1년 이상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들 중심으로 개개인의 의식과 행위방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양적접근보다는 관찰과 면담을 통한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기술적인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대상들과의 라포(rapport)형성을 통해 아직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서핑의 실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쓰일 것이다. 겨울 서핑에 참여하는 이들의 경우 여가활동으로 서핑에 참여하지만 자신의 기술을 전문적으로 늘리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며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이재광, 2017)[14]. 일반인들이 여가활동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전문화 되는 과정을 겪는 부분을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으로 소개되었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행동 기술 몰입의 과정으로 특정 여가활동에 지속적으로 참가함으로써 참가자가 경험하게 되는 특정 성향의 변화양상을 말한다. 특히, 사용되는 장비, 기술 그리고 활동 장소의 선호 양상에 의해 표출되는 행동의 연속체라 할 수 있다(Bryan, 1977)[15]. 이것은 자기 자신의 행하고 있는 운동에 완전히 의식을 좁혀 자신의 삶에 가치가 높은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오제권, 2007)[16]. Scott & Shafer(2001)[17]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몰입이 일정수준 이상 넘어 강박수준에 이르고 의무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면 개인의 삶을 통제하여 여가중독적 성향을 주기도 한다(김옥태, 이연주, 정근화, 2009; Wu, Scott & Yang, 2013)[18,19].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특징은 참여의 전문화 수준이 높을수록 경력, 참여빈도, 기술수준 등이 높게 나타나며, 참여하는 여가활동이 인생에서 중요한 비중을 갖는다고 하였다(김미량, 황선환, 2011)[20]. 이와 관련하여 서핑에 흥미를 느끼며 지속적으로 참여할수록 장비와 의류를 업그레이드하며 기술연습에 집중하여 삶에서 서핑이 생활 속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서핑은 서울,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참여자들이 시간적 여유와 금전적 여유가 없으면 참여하기 힘든 운동이다. 초겨울에 양양의 바다는 한산해지지만 전문화과정을 겪는 서핑참여자들은 추위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를 즐기기 위하여 변화된 온도에 맞는 슈트 준비와 낮은 온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와 같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적 관점에서 서핑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대 및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알아보고 일반적인 여가활동과는 어떻게 차별되는지, 또는 어떠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어떤 요인으로 서핑에 참여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로써 서핑 체험이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여가 경험인지를 파악하고 20~30세대의 새로운 여가 참여의 동향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체험형태에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이 나타나는 것으로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에 있는 서핑 참여자의 활동경험과 참여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본다면 새로운 정보를 발견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선정 및 과정

이 연구는 동해지역을 중심으로 겨울 서핑캠프에 참여하는 10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유목적 표집법을 활용하였다(임수원, 2004)[21]. 유목적 추출방법은 풍부한 정보 제공과, 연구 결과에 대한 사실성을 높여주는 것을 뜻한다(Patton, 1990)[22]. 면담이 진행되기 전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시킨 후,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에 대해 동의를 얻어 시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2.2. 자료수집

이 연구의 자료의 수집은 개별적인 심층면담으로 진행하였으며, 면담을 진행하기 전 라포(rapport)형성을 위해 동해안에 있는 죽도해수욕장에서 정기적으로 서핑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참여자들과 친목을 쌓으면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와의 본격적인 면담은 겨울 서핑캠프에 참여한 2019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면담을 진행 하였으며, 참여자와의 면담시간은 1회당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2회 이상 실시하였다.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모두 기록하고 전사하였으며, 이후 면담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점은 이메일 또는 메시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추가적으로 보충하였다.

Table 1. Research participants

Research participants	gender	age	career	job
A	male	30	3years	researcher
B	male	32	4years	School staff
C	female	38	5years	freelancer
D	female	27	3years	Piano instructor
E	male	34	3years	employee
F	female	34	4years	Author
G	male	39	5years	Fashion designer
H	male	32	4years	Entrepreneur
I	female	33	3years	Broadcaster
J	male	36	8years	Surf Shop President

면담은 반구조화 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으로 진행하였다. 반구조화 된 면담은 인터뷰 질문지를 면담 전에 준비하지만 연구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추가적인 질문의 가변성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이다. 즉, 개방적인 질문을 진행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자신이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서희정, 2016)[23].

2.3. 자료 분석 및 연구의 타당도

수집된 자료는 주제분석방법(Vaughn, Schumm, & Sinagub, 1996)을 이용하였다[24].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이 수반된다. 심층면담을 전사된 모든 자료의 내용을 여러 차례 확인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이고 순환적이며, 반성적인 탐구 과정을 통하여 연구문제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서핑 참여자들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의미와 개념들을 분류하였다. 의미 생성 과정을 통하여 주제별 약호화의 분석을 통하여 상위범주와 그에 해당하는 하위범주로 나누었고 이들 자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서핑 참여자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의 새로운 개념이나 범주 또는 의미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과 동시에 해석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적 연구 특성상 연구자의 시각적 편향성을 최소화하려는 방법도 진행하였다.

사전질문지 내용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연구의 목적에 맞는 질문과 인터뷰 내용을 도출하였으며, 타당도 확보를 위해 전공 교수 1인, 박사학위 이상의 전문가 2인(여가 전공박사 1인, 사회학 전공박사 1인), 서핑전문가

1인(서핑협회 회장)과 함께 진행하였다. 연구자의 시각적인 편향성을 줄이기 위해 면담을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이 의도했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연구 참여자들에게 정리된 내용을 보여주면서 연구의 시간, 관점 장소 및 상황들을 달리하여 그 자료와 해석을 재검토를 반복하였고, 해석의 오류와 내용을 확인시켜 주며 연구의 주관성을 배제하고자 노력하였다.

3. 결과

이 연구는 2년 이상 서핑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서퍼들에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심층면담 내용의 결과를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로 분류한 결과 총 4개의 상위범주와 11개의 하위범주가 나타났다.

3.1. 서핑입문

이 연구에서의 서핑입문은 연구 참여자들이 기존 운동에서 벗어나 서핑이라는 종목을 처음 접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단계이다. 국내 실정상 서핑이란 스포츠가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은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서핑을 입문하면서 얻은 동기와 겪었던 과정들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하위범주로는 ‘서핑에 대한 로망’과 ‘매체를 통한 접근’이 나타났다.

3.1.1. 서핑에 대한 로망

서핑에 대한 로망'에서 서핑 참여자들은 서핑을 접하기 전까지 관련 경험이 전무하였고 주로 지인과 평소 관심으로 인해 서핑을 접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서핑을 직접 체험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식이 기대에 충족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사실 저는 너무 해보고 싶고 그래서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친구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런데 같이 이제 그 친구랑 다른 친구들 여러 명 다 같이 놀러 갔는데 남들 다 하면 나만 안 하기 좀 뭐해서 그냥 같이 한 건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H-

“친구가 가자고 해서요. 사실 서핑에 대해서 정말 아예 몰라가지고. 친구가 가자고 해서 친구 따라서 오게 됐죠. 그냥 여행 겸. 처음에는 사실 바다 보러 가려고 했는데 “바다 보는 김에 서핑도 같이 하자.” 친구의 권유로. 그래서 “그래. 해보자.”해서 그렇게 바다보러 왔다가 하게 됐어요.” -I-

“제주도 여행 갔는데 거기 중문 해수욕장에서 서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게 뭐지?’하고 궁금해서 두 달 뒤에 또 혼자 제주도 여행 갈 때 그때는 이제 서핑을 검색하니까 숏이 몇 개 있어서 거기 예약하고 2박 3일로 가서 이틀 수강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한 번 딱 타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A-

3.1.2. 매체를 통한 접근

연구 참여자들은 미디어, 소셜네트워크에 나오는 자유롭고 활동적인 서핑 이미지를 통해 서핑 참여를 생각하거나 한번쯤은 체험해보고 싶은 활동으로 마음속에 정해두었다고 진술하였다.

“sns에서 보면 서핑이 멋있기도 했고 남들과 다른 것도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서핑 같은 거 위험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좀 다른 거를 해보고 싶어서. 그런 마음도 섞인 것 같아요. 일반적이지 않은 취미.” -H-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데에 올라오고 그래가지

고 몇몇 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거를 보고 “우리도 가보자.” 해가지고 한번 가보게 됐죠. 네이버에서 예약해가지고 그냥 서핑 숏 찍어가지고 택시 타고 갔어요.” -I-

“일본에 ‘태양의 노래’라는 일본 영화가 있어. 그거를 보고 ‘아, 그냥 바로 시작하자.’ 해서 그냥 강습 받으러 간 거지. 영화에는 서핑하는 장면이 몇 번 안 나와. 몇 번 안 나오고 그냥 어린아이들의 노래에 관련된 영화인데 서핑이 일상인 거야. 그런데 주인공들이 서핑을 못해. 그냥 매일 가서 물에 빠지고 이러는데도 즐거워하는 그 모습 보고 ‘저게 정말 즐겁구나.’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된 거지.” -G-

3.2. 서핑 제약 해결

참여자 대부분은 수도권에 소재한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서핑을 하기 위해 주말마다 지방으로 가는 등 경비와 시간을 적지 않게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가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서핑참여자들은 자신의 스케줄을 계획하고 이를 유동적으로 맞추는데 큰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 단계에서 나타난 여가 제약 중 시간적, 개인적, 대인적 및 구조적 제약 등은 연구참여자의 서핑에 대한 열정, 의지 및 욕구 등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3.2.1. 시간적 제약

“저 일에 대한 욕심은 많은데 서핑하면서 일을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도 줄고 좋은 일 같아요. 저한테 좋은 일이었어요. 일에 너무 목매지 않는 거. 그게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스케줄에 맞추고, 내 시간은 내 시간. 여가시간 서핑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게 됐어요.” -I-

“저는 일하는 데가 좀 자유로워서 평일에 휴가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연달아서 3~4일 이렇게 쓰는 거 아니고 하루하루씩 쓰는 거는 내 일만 다하면 상관없는 거라서. 파도보고 이제 파도 괜찮은 금요일 있으면 이제 금요일해서 금, 토, 일 연달아서 이제 서핑하러 갔다 와서 일 다시 하고. 그 대신 평일에 야근 많이 하죠. 주말에 쉬려고. 그러다 파도 없으면 이제 평일에 좀 널널하

게 하고 주말에도 잠깐 잠깐 나와서 일하고.”
-A-

“전에 부서에서 지금 부서로 이동했는데 연차 쓰는 거랑 “주말에 우리는 다 쉬어.” 이러면서 막. 그랬더니 되게 혹 하더라. 주말에 쉬는 게. 월급은 조금 디스카운트는 있어. 그런데 심하지는 않아. 기본 월급에서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고 그냥 한 10% 줄기는 했어. 10% 줄었는데 10% 보다 차라리 내가 주말을 확보했고 내가 원할 때 연차를 쓰고 휴가를 좀 어느 정도 원할 때 갈 수 있는 그런 거.” -E-

“회사 책상에 앉아 있는데 너무 집중이 안 되는 거야 파도밖에 생각 안 나고 어떻게 잘 탈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면서 일에 이제 집중이 안 되면서 아내가 더 이상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일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준비를 했지 내려올 생각을 했지.” -C-

3.2.2. 금전적 제약

금전적 제약에서 나타난 연구 참여자들의 제약 해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입문 초기 장비를 렌탈을 하다가 정기적으로 서핑에 참여하면서 렌탈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장비구매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했다. 서핑장비가 고가다 보니 중고로 구매하기도 하고 지인을 통해 싸게 구매하기도 하였고 서핑보드를 사서 이용하고 되판다고 진술했다. 서핑참여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취미활동에 나가는 비용을 줄이거나 포기하였다고 표현하였다.

“저는 아무래도 유부남이고 그러다 보니까 용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렌탈비가 좀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펀지 보드를 하나 샀어요. 중고로. 그래서 그거를 타다가 조금 조금씩 계속 장비를 바꿔왔거든요. 거의 그런데 중고로 많이 샀죠. 돈이 아까워서. 새 거 사기에는 너무 비싸서.” -B-

“아는 분이 계속 1년에 한 번씩 실버 피쉬에서 보드 두 개를 받으세요. 협찬 받으세요. 그거를 한 번 탔나, 두 번 탔나. 진짜 완전 새 보드거든요. 그런데 그 언니가 조금 싸게 넘겨주겠다고 해가지고. 초보인데 타면 좋다 그래가지고. 보드도 예쁘더라고요. 초록색인데 약간 에메랄드빛 들

면서. 그래서 어, 완전 괜찮다. 좋다. 그래서 싸게 좀 넘겨주셨어요.” -I-

“저는 차도 없고, 장비도 없고. 그래서 모임. 인터넷 소모임 앱의 서핑 소모임을 가입해 가지고 그 사람들 덕분에 여기 죽도라는 포인트가 있다는 걸 그때 알고. 소모임에서 친해진 사람들이 여기 또 계시고. 게스트하우스 하는 오빠도 있고 하나까 좀 이제 편하게 그때부터 제대로 카풀 문화 이런 것도 알게 되고.” -D-

3.2.3. 환경적 제약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 주말은 지인들과의 약속 보다는 서핑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성관계, 친구관계 등 사회적 인간관계보다는 서핑을 우선시하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대한민국은 외국에 비해 파도의 질이 좋지 못한 점과 어린나이에 시작하는 외국과 달리 20~30대 초에 서핑을 시작해서 기술습득이 어려운 점을 토로하였다.

“서핑하면서 주말에 약속을 안 잡아요. 파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계속 이제. 이게 단점이 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누구와 소개팅을 해도 이제 주말에는 좀 시간이 잘 안나요. 파도 있는 날에는 그러니까 약간 소개를 받아도 그분한테 “다음 주 우리 토요일에 만나요.” 이런 말을 안 하게 돼요.” -A-

“일단 서핑을 하게 되면 파도가 언제 좋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말 약속을 좀 항상 비워두는 편이고. 만약에 약속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파도가 좋으면 친구한테 약속을 깨고 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서운한 게 있었던 적은 있었어요. 그것도 가족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제가 자주 가면 2주에 한 번씩은 꼭 갔거든요. 아무래도 와이프랑 애들은 안 좋아하죠. 어디 가냐고.” -B-

“우리가 스노보드나 골프나 솔직히 내가 연습하고 싶으면 연습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서핑은 연습하고 싶어도 그만한 환경이 안 돼. 내가 어떤 기술을 하려고 하는데 그 파도가 없어. 그러니까 연습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G-

3.2.4. 체력적 제약

서핑은 바다에서 하는 운동이고 서퍼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보드와 보드를 이어주는 리쉬코드이다. 언제 위험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수영의 필요성을 느끼고 배웠다고 연구 참여자들은 진술하였다. 그리고 서핑입문하고 나서 ‘패들링’ 동작에 대한 체력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평소에 운동을 안한 참여자들은 기초체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웨이트, 달리기 등 각자 체력증가를 위해 노력을 하였다.

“제가 패들링이 약해서 그와 비슷한 수영을 끊어서 계속 했어요. 잘 타는 사람들이 추천해주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칠지 몰라서 서핑하기 전에는 운동을 안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지치지 않고 오래 타기 위해 달리기도 하고” -D-

“내가? 일단은 수영을 배웠지. 일단 수영을 배워야 내가 혹시나 무슨 일 있어도 나도 살 수 있고 또 내 지인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때 제일 먼저 배운 게 수영이었고. 기본적으로 운동은 따로 하는 건 없는 것 같아.” -E-

“서핑 접하기 전에는 운동 거의 안 했었어요. 안 했는데 이제 서핑 하려면 기초 체력이 필요하니까 기초 체력 하려고 서핑에 도움 되는 운동을 많이 했어요. 숏 보드 할 때는 이제 그거 늘리려고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다 물어봤어요. 코치들한테. 어떻게 하는가. 턱걸이도 많이 하고, 팔굽혀 펴기도 기본적으로 하고, 플랭크도 하고.” -A-

3.3.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은 서핑을 통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초기에 서핑을 잘 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지만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이 정착된 참여자들은 실력향상보다는 즐겁게 타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에서 나타난 하위범주인 기술연습, 장비의 중요성 인식 등은 실력향상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좀 더 재밌게 동작을 발현하고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고 있었다.

3.3.1. 기술 연습

참여자들은 지상에서 서핑동작을 이미지 트레이닝 하거나 서핑기술 습득에 도움이 되는 서핑용 스케이트보드(카버보드, 스무스스타)를 구매해 이용하였다. 스케이트보드는 파도가 없는 날 서퍼들이 지상에서 나무판에 바퀴를 장착시켜 보드의 느낌을 살려서 탄 것이 점점 개량이 되어 다양한 종류의 스케이트보드가 개발되었다. 또한 휴가 때 해외 서핑캠프에 참여한다고 언급하였다.

“일반 평지보다는 약간 약 경사인데 쪽 기다랑게 약 경사인 데는 업다운 연습하기 좋고요. 이제 턴 같은 거 연습하기에도 도움이 되고. 확실히 파도를 많이 못 타면 카버 보드나 스무스스타 타면 도움은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거죠. 서핑을 위한 랜드서핑이 아니고 진짜 그냥 단순한 랜드서핑이냐의 차이라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멋있게 타려고 랜드서핑을 할 때 서핑판 다르게 타는 사람들 있는데. 전 서핑을 위해서 랜드서핑을 해요 -A-

“한국에서는 좋은 파도를 타려면 동해의 겨울이나, 봄, 여름의 제주 중문해수욕장, 부산 송정해수욕장을 가야하는데 수도권 서퍼들은 제주, 부산은 거리적 부담이 있어, 해외로 눈을 돌려 발리, 일본, 필리핀으로 해외여행을 결정합니다. 휴가 때 서핑 겸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I-

“기술을 해야죠. 그래야 재밌게 타니까. 그리고 저는 처음에 경쟁하는 것도 싫고 노력하는 것도 싫고 내가 너무 힘든 상태여서 뭔가를 받아들 수 없는 상태여서 ‘이걸 꼭 그렇게 열심히 경쟁해서 해야 돼?’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지금은 내가 잘 타야 재밌고 편안하고 놀아야 재밌고 그거를 연습을 하면서 타야 재미있는 걸 깨달아서.” -D-

“나도 처음에는 실력을 늘리기 위해 내가 탄 영상 분석하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선수처럼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타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고. 어느 정도, 워킹과 롱 라이딩을 하고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빅웨이브까지는 아니고 그냥 가슴에서 헤드 정도의 파도를 내가 자유롭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정도로 타고 싶다가 내 목표야.” -G-

3.3.2. 대회 참여

전문화 과정에 있는 서핑 참여자들은 대부분 대회참여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서핑대회는 체조와 비슷한 채점형식이기 때문에 점수획득에 유리한 동작들을 연습한다고 하였고, 대회를 통해 본인의 서핑실력 향상에 자극제가 된다고 표현하였다.

“양양대회에서 입상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고 싶은 기술은 플로터랑 막 엔딩 하는 기술 있잖아요. 마지막 파도 끝날 때 이렇게 탁 치고 나오는 그런 것들. 마무리 기술들. 그런 거 위주로 좀. 그런데 이거는 사람마다 거의 다를 거예요. 그런 거 제대로 구사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대회에서 성적을 떠나 다 같이 모이게 되니 얼굴도 보 구 축제 같은 분위기가 좋아서 참가하게 된 것도 있어요.” -B-

“서핑을 현실의 도피처 정도로 생각하고 매주 다른 세상에 오는 기분으로 즐기고 놀았습니다. 그러다 바다에서의 인연이 늘어가고 그 분들이 대회를 참가한다고 하여 대회에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대회 성적은 예선 2차 통과 후 탈락 등 본선에는 못 올라갔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회에서 실력과 기술을 익히고 보여주기보다는 축제의 개념 인거 같아요.” -H-

“서핑대회가 경기와 승패보다는 서퍼들 모두가 즐기는 축제라는 의미가 강해서 실력이 좀 부족해서 즐겁게 대회에 임할 수 있더라구. 그리고 서핑이라는게 혼자서 열심히 타도 스스로 본인에 대한 실력평가가 어려운데 대회에 참가해서 입문 시기가 비슷한 사람들과 경기를 치루다보면 객관적인 실력도 알게 되고 고칠 점, 배울 점을 스스로 느끼다 보니까 긍정적인 자극이 되더라구.” -E-

3.3.3. 장비의 중요성 인식

서핑입문 당시 스폰지보드를 타다가 지루함을 느끼고 단단한 재질의 에폭시보드, pu보드로 바꾸었다. 그러다 기능성 좋은 보드를 찾게 되고 보드 길이를 줄이고 싶다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보드가 작아질수록 부력이 작아져 체력적 부담이 커지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다시 롱보드로 돌아오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기술수준, 체력수준, 그날의 파도상황에 따라 보드를 선택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선셋보드라고 되게 좋은 스폰지 보드, 그거 타고 재미있게 타다가 이제 주변에서도 “너 사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마침 매물이 나와서 그거를 샀었는데 그거 바꾸고 나서 저는 거의 9개월을 해맸어요. 보드를 바꾸자마자 일단 단단 하기도 하고 더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겠다. 날리면, 이렇게 박으면 또 바로 사고니까. 그런 거 신경 쓰느라고 초반에 또 더 해맨 것도 있고. 그냥 컨트롤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좀 바꾸고 싶어요. 조금 더 기능성 좋은 걸로 바꾸고 싶어요.” -I-

“부산에 있을 때 숏보드 계속 타다가 서울와서 숏 보드 주말만 하니까 체력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이제 롱 보드를 사서 롱 보드도 타고 지금은 롱, 숏 이제 번갈아 가면서 타고. 파도가 이제 빨리 깨지는 파도다 싶으면 이제 숏 보드 가지고 들어가고. 좀 완만해서 패드를 해서 잡을 수 있는 파도 같으면 이제 롱 보드로 편안하게 타려고.” -A-

“나는 보드를 많이 샀어. 한 4~5장 볼 하다가 이번에는 다 처분을 하기는 했어. 미들랜스 이번 에 줄여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제 초보 입문했을 때 사는 그 정석적인 보드들 있잖아. 뭐 이마트 보드라든지. 와일드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매를 했다가 팔고, 뭐 다시 중고 구매해서 타다가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여러 가지 타보기는 했는데 뭐 쉽지는 않지. ‘나한테 이게 맞는 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많이 타봐야 알아. 장비 같은 경우에는.” -C-

“나는 보드를 많이 샀어. 한 4~5장 볼 하다가 이번에는 다 처분을 하기는 했어. 미들랜스 이번 에 줄여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제 초보 입문했을 때 사는 그 정석적인 보드들 있잖아. 뭐 이마트 보드라든지. 와일드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매를 했다가 팔고, 뭐 다시 중고 구매해서 타다가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여러 가지 타보기는 했는데 뭐 쉽지는 않지. ‘나한테 이게 맞는 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많이 타봐야 알아. 장비 같은 경우에는.” -C-

3.4. 삶의 변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에 있는 서핑 참여자들은 서핑을 접하기 전과 일상이 크게 변화되었다고 언급하였다. 하위범주로는 ‘체력적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났다.

3.4.1. 체력적 변화

참여자들은 이전과 비해 신체적 변화를 확연히 느꼈다고 했다. 남성 참여자의 경우 코어 근육이 향상됐다고 언급했다. 여자의 경우 피부 트러블 등으로 인해 여성미를 잃었다고 언급했지만, 이전

에 경험해보지 못한 보이쉬함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쁨과 자신의 새로운 변화를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근력이 엄청 좋아졌지 특히 등 근육. 여자가 등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는건 힘이 드는데 서핑하면서 등 근육이 자연스럽게 발달했고 코어도 꽤 좋아진거 같고. 체온 유지능력이 좋아졌어. 이 건 겨울서핑하고 변화. 추위를 좀 덜 타게 된 것 같아. 대신..피부는... 잡티도 많아지고 주름도 많아지고... 여자들은 특히 미용 쪽은 많이 내려놓는거 같애.” -D-

“피부가 매우 탱고 가끔 하얗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만 원래도 하얀 피부는 아니여서 건강해 보이는 시꺼먼 피부도 만족스럽습니다. 서핑 막 시작했을 다른 운동도 많이 하던 때여서 활동량이 많다는 핑계로 많이 먹었더니 별크업에 성공했었습니다. 갑자기 느끼진 못했지만 지나고 보니 팔에 잔근육도 많이 생기고 서핑할 때 쓰는 근육들이 발달했던 예를 들면 보드위에서 상체드는거 못했는데 요샌 편안하게 일어서요.” -I-

“몸통도 두꺼워지고 등도 좀 커지고 팔도 좀 두꺼워지고. 어쭙이(어깨가 좁아지고)인데 지금 막 되게 덩치가 엄청 좋아져서 여자로서 여성미는 아쉽지만 저는 건강해지고 있고 겨울 서핑하기 전에 무조건 매년 독감에 걸렸어요. 지금 걸린 감기가 원래는 독감이어야 하는데 그냥 목감기 정도로 많이 건강해졌어요. 진짜.” -D-

“예전에 어깨 좁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어깨 넓어진 것 같다고 말해주고. 서핑하기 전에 제가 공부만 하다보니까 허리가 굽어 있고 목이 계속 아팠어요. 서핑하려고 기립근 운동도 많이 해서 상체도 많이 펴지니까 두통도 별로 없어졌어요. 전에 공부할 때 계속 두통이 있었는데 그런 두통도 사라지고 허리 아픈 것도 줄었어요.” -A-

3.4.2. 가치관의 변화

참여자들은 서핑을 하면서 통제 할 수 없는 자연에 순응하고 흐름에 맡기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자연 속에서 참여하는 서핑을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진지하게 자연보호에 대하여 신경을 쓰게 되었다고 하였고 서핑이 주는 만족감에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행복감을 느낀다고 진술하

였다.

“그렇죠. 원래는 되게 급하고. 성격도 정말 급하고.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하다가 그만두는 그런 성향도 어느 정도까지 달성 이상을 하려면 이제 뭔가 참아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이 발전이 없는 시기를.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원래는 마음이 급하니까 못 견디니까 그냥 그랬던 것 같은데. 서핑하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크니까 밖에서 웬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에는 크게 동요를 안 하는 것 같아요.” -F-

“자기를 좀 다스리는 게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맞서는 상대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대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거를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막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서핑을 계속 오래 하다보면 흐름을 잃게 되는 거지, 그 흐름에 맞서려고 하면 튕겨 나오는 걸 배우잖아요. 바다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밖에 나와서 곰곰이 생각해보거나, 바다의 라인업에서 잔잔하게 앉아서 생각해보면 세상 살아가는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다 비슷하게 느낄 거예요.” -C-

“해양환경을 생각하고 플라스틱에 관련된 그런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고 그래도 내가 환경운동가는 아니야. 그냥 이런 인식변화가 된 거를 좋으니까 너도 같이 하자는 식으로 퍼지고 있는데.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슈도, 전 세계 이슈도 플라스틱에 관련된 게 또 생긴 거잖아.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서퍼들의 이러한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J-

“서핑을 통해 바다가 마음의 거리에서 엄청 가까워 졌고 그리고 되게 별개의 것 같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자연보호 이런 것도 환경운동가들이 하는 거고. 산불지킴이 이런 것도 그런 사람이 하는건데.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누구든 다 같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냥 자연을 아끼고 보호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그거를 몰랐구나. 생각했어.” -I-

“난 물질적으로 가진 게 많았는데도 항상 좀 불안하고. 가진 게 많아서 불안한 게 아니라 그

냥 불안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행복감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런데 서핑을 하면서 자연이라는 바다의 큰 포용감에서 있을 때 그게 조금 더 여유로워지는 게 100% 생기더라고.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그때보다 훨씬 못하거든. 그러면 더 불안해야 되는지만 지금의 내가 더 여유로워. 더 행복하고. 어느 나라를 가도 서퍼들을 만나면 다 비슷할거라 생각해.” -J-

“물위에서 파도를 타는 진짜 서핑에 대한 만족감도 높지만 그것보다 양양에서 사람들에 대한 관계도 서핑의 연장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서핑이 꼭 파도를 타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문화 등 굉장히 넓은 의미가 되었어요.” -H-

4. 논의

연구대상자들의 서핑참여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상위범주로 ‘서핑입문’이 도출되었다. 서핑을 처음 접하는 참가자의 참여 동기는 총 두 가지로 ‘서핑에 대한 로망’ 및 ‘매체를 통한 접근’ 등의 하위요인이 제시되었다. 서핑을 처음 입문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경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서핑을 접하면서 기존 운동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게 되면서 참여를 지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부분의 남성 참여자는 이전부터 자연적이고 익스트림한 경험과 함께 과거에 접했던 골프, 헬스 등 다소 정적인 운동과는 다른 차별적인 경험을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강현욱, 박광원, 2017)[2].

두 번째 하위요인인 매체를 통한 접근은 서핑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경험이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서핑을 처음 접하기 전까지 서핑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무했다. 그러나 매체를 접하면서 서핑 동작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관련 정보를 얻어서 서핑에 대한 이해와 실력향상을 수월하게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상위범주로는 ‘여가제약 해결’이 추출되었다. 관련 하위요인은 ‘시간적 제약’, ‘금전적 제약’, ‘환경적 제약’, ‘체력적 제약’ 등이 언급됐다. 다음과 같은 결과는 Jackson, Crawford와 Godbey(1993)의 여가제약 단계적 모형과 맥을

같이한다[25]. Jackson, Crawford와 Godbey(1993)의 연구에서는 금전적 어려움을 여가참여를 지속하는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보았다[25]. 또한, 인간관계 제약이 여가 마니아로 발전하는데 방해요소로 제시한 권일권, 김지태 및 박상규(2016)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26]. 서핑입문을 통해 재미와 만족감을 충족했던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여가제약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서핑참여를 통해 내재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 상위범주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가 추출되었으며, 하위범주로는 ‘기술 연습’, ‘대회 참여’, ‘장비의 중요성 인식’ 등이 선별되었다.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 중 본 연구의 서핑 참여자들은 실전에 임하기 전에 서핑 동작들을 숙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핑과 관련해 참여자 간에 영향을 찍어주거나 의견을 제시해주는 등 기술 연습을 통해 상호작용적인 과정이 모두 나타났다. 또, 참여자들은 서로 의견을 제시해주는 과정이 서핑을 지속하고 기술을 연마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연마된 높은 수준의 기술은 자신에게 더욱 도전적인 의식을 고취시키고 높은 아드레날린도 얻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결과는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 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Scott과 Shafer(2001)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18].

본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은 기술 및 지식 습득의 노력을 통해 전문성을 갖게 되는 공통점이 나타났다. 대회 참여의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들은 서핑에 참여하는 것 이상으로 서핑대회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서핑은 현실의 도피처’, “서핑대회가 경기와 승패보다는 서퍼들 모두가 즐기는 축제” 등 서핑에 대한 높은 참여의식을 보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Deci & Ryan(1985)의 연구에서 이미 드러난바 있다. 그는 내적 동기는 외적인 보상이 없음에도 그 활동 자체만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즐거움과 만족감을 갖게 된다고 언급했다[27]. 또한, 장용현(2017)의 연구에서도 생활체육 축구 동호인은 대회에 참여해 실력을 향상하고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감을 증대시킨다고 밝혔다[28].

연구 참여자들의 장비 중요성 인식은 향상된 실력과 함께 보드선택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인들과 함께 장비와 도구

등을 비교하고 싼 가격에 구입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서핑 참여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파도에 알맞은 보드를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알아보고 준비하는 등 장비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와 같이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과거와의 비교, 경제적 투자 등으로 인해 자신의 레크리에이션 수준을 강화된다는 황선환, 최홍석(2012)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로 분석된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화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경제적 투자 등의 경험하면서 지속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29].

마지막 상위범주로는 ‘삶의 변화’가 추출됐다. 하위범주로는 ‘신체적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제시되었다. 서핑 참여자들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된 몇 가지 경험들이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첫 번째 신체적 변화 속에서 서핑 참여자들은 등근육과 상체 균형이 전에 비해 발달되었다고 언급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서핑을 접하면 여타 운동에 비해 서핑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체 코어와 근육 등을 효율적으로 단련시켜주는 장점을 지닌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결과는 Kuhn(2013)의 연구 결과와 같은 결과이며[30], 김지연(2007), 박광원, 박찬민, 이철원(2016)의 연구에서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운동을 통해 달라진 신체적 변화와 여가 활동을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즐거움을 인식하고 있었다[31,32].

하위요인인 가치관의 변화에서는 서핑을 접하면서 자연환경의 중요성과 환경보존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언급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서핑을 통해서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큰 기쁨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여타 운동 종목과는 별개로 실내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서핑은 최근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등 기후문제로 참여가 나날이 제한되고 있다며 환경의 중요성을 이같이 설명했다. 또한, 서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소중한 시간이며, 서핑이 운동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인생의 큰 전환점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서핑을 통해 ‘자연친화’ 동기에 대해 연구한 현종환, 김덕진(2017)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33]. 또한, 바다와 같은 자연친화적인 장소에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에코 스포츠(ecosports)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이지훈, 2012; 이재빈, 2010)[11,34]. 특히, 최효수(2016)의 연구에서는 서핑 참여자들은 자

연적인 환경에 큰 관심과 영향을 받으며 이를 이유로 좋은 파도세가 위치해 있는 곳으로 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3]. 강현욱(2019)의 연구에서도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 스포츠는 서핑 참여자에게 인지된 자유감을 주어 심리적 영향에도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언급하였다[35].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정적으로 서핑에 참여하는 서퍼들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의 특성에 대하여 문화기술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0명의 연구 참여자들과의 개별적인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주제별 약호화 및 의미별 범주화, 개념화의 주제 분석과정을 통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4개의 상위범주와 11개의 하위범주화가 나타났다. 도출된 구성요소는 서핑입문, 서핑계약해결,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삶의 변화 총 네 가지로 정리되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서핑 참여자들은 서핑을 처음 접하기 전부터 서핑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변 지인들과 서핑이 즐기며 다른 운동종목과는 다른 특이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서핑을 접해본 뒤로는 서핑에 대한 호기심과 운동을 지속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로 언급했다. 서핑 참여자들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에 이르기 전에 앞서 서핑에 대한 시간적, 금전적, 환경적, 체력적 제약을 경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거쳤다고 언급했다. 여러 제약을 참으면서 이겨낸 서핑 참여자들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보통 실전 운동에 임하기 전 보드 동작과 자세를 숙지하고 이를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핑 참여자 간에 상호 협력을 통하여 보드 동작을 촬영해주거나 의견을 제시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연습을 준비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점점 실력이 향상되면서 능력에 알맞은 보드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파도 세기에 알맞은 보드 등을 휴대하거나 지인을 통해서 관련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 일반 스포츠 참여와 또다른 변화는 서핑참여자들은 삶의 변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서핑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된 이후로 음주성향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일반 삶에서도 변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다음날 서핑을 좋은 몸 상태로 참여하기 위해 선호하는 음주도 자제하며 서핑활동에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었으며, 기존에 날씨 변화에 둔감하게 살다가 서핑을 시작한 후에는 날씨에 대한 확인을 매일같이 체크하는 습관이 생겨났다고 하였다. 특히, 서핑 참여자 간에 유대감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서핑을 통해 자신의 가치관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서핑을 통해 자기 자신의 의미를 부여하고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고 언급했다. 또한, 물질적인 것보다 자기 행복에 더 초점을 두는 가치관을 지니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핑 참여자들은 서핑을 통해 과거에 비해 자신의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불어 환경에 관한 중요성과 보존성을 유지해야 하는 로하스적인 삶의 인식을 갖게 됐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 서핑 참여자에 대한 경험을 이해하고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참여자 중심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다음 연구는 국내 다양한 지역에서 진행된다면 한층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바이러스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이 변해가고 있다. 자연 속에서 하는 서핑에 빠지면서 참여자들 대부분 서핑을 접하기 전보다 환경 인식이 바뀌었다고 하였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의 결과 제시는 점차 중요해지는 환경오염에 대해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참고 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H. W. Kang, K. W. Park, "Analysis of crossfit exercise experience as a recreational specialization", *Leisure Research*, Vol.15, pp. 61-81, (2017)
2. K. Y. Kim,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Structure of the Activities of Windsurfing Donghoin in Jeju Island", *Jeju Tourism University Thesis Collection*, Vol, pp. 469-495, (2000)
3. H. S. Choi,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urfing tourists, experience motivation, and surf resort selection attribut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6)
4. H. Y. Park,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experience of surf culture according to visual narrative using illustra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7)
5. J. H. Kim, "Analysis of modeling techniques and properties for localization of surfboard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Maritime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1)
6. S. W. Shin, T. J. Park, G. E. Seo, "The effect of windsurfing exercise on static balance ability and ankle strength of male college students", *Korea Sports Science Association*, Vol.27, No.2, pp. 1259-1267, (2018)
7. Y. J. Kim, "Yangyang Surf Beach's spatial business strategy", *Dong-A Business Review* 286, (2019)
8. S. J. Kim, "Fun Factors of Surf Participants,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Satisfaction and Re-Participation Inten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17)
9. J. O. An, "The effect of surfing participation decision factors on satisfaction and re-engagement inten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1)
10. J. H. Lee, "The effect of surfing goods company's social responsibility (CSR) on corporate trust, brand attitude, and brand attach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eui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2)
11. J. M. Hwang, "The Effects of Surfing User Value Pursuit on Surfboard Design

- Perception and Design Evalu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7)
12. H. S. Kim, “Analysis of balance ability and lower extremity muscle activity according to surfers' refining degree”,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9)
 13. Glesne.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 an introduction*”, 3th ed, Massachusetss, (2006)
 14. J. K. Lee, “Badminton Enthusiast's Recreation Specialization Experience Shaping Proc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7).
 15. Bryan. H, “Leisure value systems and recreational specialization: The case of trout fisherme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9, No.3, pp. 174-187, (1977)
 16. J. K. Oh, “The Effects of Physical Sports Participation on Exercise Addiction and Psychological Happi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07)
 17. Scott, D., & Shafer, C. S, “Recreational specialization: A critical look at the construct”,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33, No.3, pp. 319-343, (2001)
 18. O. T. Kim, Y. J. Lee, G. H. Jeong, “*Human and leisure. Paju, Gyeonggi-do*”, Korean Academic Information, (2009)
 19. T. C. Wu, Scott, D., & C. C Yang, “Advanced or addicted? Exploring the relationship of recreation specialization to flow experiences and online game addiction”, *Leisure Sciences*, Vol.35, No.3, pp. 203-217, (2013)
 20. M. R. Kim, S. H. Hwang, “Structural model analysis of serious leisure and recreation specialization and immersion”, *Leisure Research*, Vol.9, No.1, pp. 27-41, (2011)
 21. S. W. Lim, “Gender Role Conflict and Gender Role Identity Change for Female Field Hockey Player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43, No.2, pp. 55-66, (2004)
 22. Patton, M. Q, “*Qualitative evaluation methods(2nd ed)*”, Beverly hills, CA: Sage, (1990)
 23. H. J. Seo, “Narrative exploration of job experience of teachers at work daycare cent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6)
 24. Vaughn. S., Schumm, J. S. & Sinagub. J, “*Focus group interview in education and psychology*”, Thousand Oaks, CA: Sage, (1996)
 25. Jackson, E. L., Crawford, D. W., & Godbey, G,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s*, Vol.15(1), pp. 1-11, (1993)
 26. I. K. Kwon, J. T. Kim, S. G. Park, “Analysis of the formation of a serious leisure experience for camping enthusiasts”, *Korean Society for Social Sports*, Vol.64, pp. 531-542, (2016)
 27. Deci, E. L., & Ryan, R. M, “The general causality orientations scale: Self-determination in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19 No.2, pp. 109-134, (1985)
 28. Y. H. Jang, “Relationships between Participation Satisfac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ion in sports competi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7)
 29. S. H. Hwang, H. S.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constraints,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s and recreational specializations: Focusing on skiers”, *Physical Science Research*, Vol.21, pp. 974-983, (2012)
 30. Kuhn, S, “*The culture of CrossFit: a lifestyle prescription for optimal health and fitness*”, (2013)

31. J. Y. Kim, "A Study on Satisfaction,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of Middle-age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7)
32. G. W. Park, C. M. Park, C. W. Lee, "Analysis of daily leisure experiences that are symmetrical with work", *Leisure Research*, Vol.14 No.1, pp. 29-45, (2016)
33. J. H. Hyeon, D. J Kim, "Inductive content analysis of the participation motivation of surf participants", *Marine Sports Research*, Vol.7 No.1, pp. 15-26, (2017)
34. J. B. Lee, "A study on the strategy to activate the advancement of marine sports according to lifesty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0)
35. H. W. Kang,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freedom and psychological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of surf participants", *Korean Journal of Physical Science*, Vol.28, No.1, pp.321-332, (2019)